

사선치료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두경부종양으로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5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각환자의 치료전 종양조직의 paraffin section을 human p53 단백질에 대한 monoclonal antibody(D-07)로 면역조직화학염색하여 Labeling Index(number of labeled nuclei/total number of counted nuclei×100) 및 염색정도를 관찰하여 임상결과와 연관지어 분석하였다.

**결 과** : 전체환자의 67.2%에서 p53의 기능이상을 시사하는 과발현소견을 보였다. 원발병소에 따른 과발현 빈도는 oral cavity, larynx, hypopharynx, nasopharynx 순으로 각각 100%, 76%, 67%, 67%, 38%로 나타났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과발현 빈도를 보였다(78.6% vs 30.8%). 염색정도(high vs. low)가 높을수록, 병기(I & II vs. III & IV)가 높을수록, p53의 과발현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원발병소, 병기, Karnofsky performance status가 치료 반응율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p53 과발현 여부는 치료반응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소제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원발병소, 병기, 종양의 분화도가 유의성을 보였고, p53의 과발현여부는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원발병소와 병기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후인자로 나타났으며, p53의 과발현여부는 유의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결 론** :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두경부종양환자에서,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의한 p53 과발현율은 원발병소, 병기 및 흡연여부와 유관하였으며, 과발현여부가 치료반응율, 국소제어율 및 생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향후 면역조직화학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통한 p53 기능이상 검색, 원발병소 및 병기에 따른 각 환자군의 독립적인 연구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7

## 하악-설 유리 접근법

백정환 · 김효열\* · 박주현 · 손영익 · 추광철  
성균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하악-설 유리 접근법(mandibular lingual release approach)은 1984년 Stanley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구강저 피판을 만들어 구강저를 하악골에서 분리시킨 후, 하악골 아래로 끌어내림으로서 구강 및 구인두에 위치한 종양에 대해서 기존의 술식들에 비해 하악의 손상 없이 좋은 수술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 술식의 장점을 하악골의 연속성을 유지시킴으로서, 골절술 후 방사선 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합 및 유합 결여 등의 후유증을 피할 수 있으며, 하구순을 절개하지 않음으로서 미용학적으로서도 우수하다. 저자들은 진행성 구강암, 구인두암 환자들에서 하악-설 유리 접근법으로 하악의 절제없이 좋은 시야를 확보하여 종양의 적출, 경부곽청술 및 유리 피판을 이용한 재건술을 시행할 수 있었기에 이 술식의 장단점을 보고하고자 한다.

8

## 설암에서 침윤정도와 예후와의 관계

심우영\* · 조재민 · 이재우 · 백무진 · 노환중  
고의경 · 왕수진 · 전경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배 경** : 설암은 두경부 종양 및 비교적 드문 질환이다. 그 예후는 타 종양에 비해 불량한 편이다. 따라서 설암의 치료에 있어 조기에 적절한 외과적 안전절제범위를 정하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 적** : 국소소견상 설암의 표면침윤정도와 광학현미경상 심부침윤정도와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근층침범과 경부깊이침범의 연관성 및 예후와의 관계를 밝혀 종양 두께에 따른 적절한 외과적 안전절제범위를 정하고자 전향적 방법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1995년 7월부터 1997년 9월까지 부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받은 설암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술후 얻어진 조직을 삼차원적으로 측정된 뒤, 연속절편으로 제작하여 병리조직학적으로 관찰하고 침

범깊이를 측정한 뒤 경부전이와 예후 등과 비교하여 그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결 과 :**

1) 72시간 포르말린 고정에 의한 설 조직의 부피감소는 12.3%이었다.

2) 설암의 육안 국소소견의 최대직경과 광학현미경적 암조직이 침윤된 심부침범정도와의 연관성은 상관계수  $R=0.655$ 의 유의성이 있었다( $p<0.05$ ).

3) 근층침윤 표면의 최대직경과 근층침윤 정도와의 상관계수는  $R=0.849$ 로 매우 연관성이 있었다( $p<0.05$ ).

**결 론 :** 설암의 진단에 있어 육안적인 소견만으로 침범정도 및 전이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심부절제범위의 추정 가능성이 가능하다. 근층침범 자체만으로 경부전이율이 상당히 증가됨을 알 수 있었고, 이런 경우 향후 치료에 있어 근치적인 경부확청술 등 한층 더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인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9**

**설골하 근육 피판과 요골측 전박 유리피판을 이용한 설암 결손부 재건**

김영모\* · 조정일 · 이충재<sup>1)</sup> · 이세일<sup>1)</sup>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sup>1)</sup>

구강암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설암에 대한 치료는 술후 섭식 및 언어 기능의 회복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하여 설암 수술 후 남은 조직의 가동성 여부, 감각, volume이 기능 재건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광범위한 크기의 근피판이나 유리 피판을 이용하여 volume 효과를 줄 수 있었고 sensated flap을 이용하여 술후 감각 기능의 회복을 유도하고자 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건 방법이 운동 기능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non-contractile 조직으로 위축되거나 반흔 조직화 되면서 점차 구강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운동 기능의 회복을 유도하는 재

건 방법이 어려웠는데 저자는 2례의 설암 환자에서 an-sa cervicalis와 superior thyroid artery 분지의 지배를 받는 infrahyoid neurovascular flap과 sensated forearm free flap을 동시에 이용하여 효과적인 혀의 기능 재건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10**

**설암적출후 감각 전박 유리피판을 이용한 구강의 기능적 재건술**

김민식\* · 조승호 · 박영학 · 선동일  
김형태 · 유우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구강은 정상 연하 및 구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혀는 이러한 생리학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설암적출후 여러 재건술이 시도되고 있으나 술후 이러한 생리학적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는 혀의 가동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과 감각의 유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Urken(1994)은 전박유리피판을 이용한 이엽형 감각피판(bilobed sensate flap)을 고안하여 구강재건에 이용하였고 저자들은 이러한 피판을 변형한 다엽형 감각전박 유리피판(multilobed sensate radial forearm free flap)을 도입하여 10명의 환자에서 설암적출후 설, 구강저 및 편도와 재건에 이용하였다. 10명의 환자중 7명의 환자에서 장기 추적관찰 및 감각회복과 구음기능의 평가가 가능하였다. 7명중 4명에서 피판의 감각회복이 나타났고 7명중 6명에서 만족할만한 혀의 가동성 및 구음기능이 평가되었다. 설종양적출후 구강의 재건에는 생리학적 기능을 고려한 다엽형 감각전박 유리피판을 이용한 재건이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11**

**두경부 악성종양 수술후 유리피판술에**